

## 미술시장 침체, 단색화로 극복

<워크앤광> 제주미술기행 [김유정의 미술기행 멋과 미] 72. 단색화

등록 : 2015년 01월 29일 (목) 09:26:15 | 승인 : 2015년 01월 29일 (목) 09:32:52  
최종수정 : 2015년 01월 29일 (목) 09:32:38

김유정 ✉ webmaster@jemin.com



▲ 단색화의 특징은 단순함, 반복적 행위, 극히 절제된 표현, 단조로운 색을 사용함으로써 내용보다는 형식 중심의 표현을 시도한다. 사진은 영국의 아트페어인 프리즈로 아트페어에 참가한 방문객이 단색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서귀포에 국제갤러리 설립 ...세계적 아트딜러 방문 기대 "미술 공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제주도 저력이자 비전"

#### 미술시장의 경기불황을 넘어서

최근 한국의 경제는 불황으로 치달고 있는데 불황이 될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미술시장이다. 미술품 구매는 소위 의식주를 해결한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쯤으로 여겨지는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온 나라 경기가 얼어붙은 요즘에 그래도 단색화에 대한 붐이 솔솔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단색화란 말 그대로 모노크롬 회화다. 일찍이 한국화단은 전후 외래사조인 모노크롬 회화를 받아들이면서 무한한 실험을 거듭했었고, 한때 대중적인 유행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단색화에 대한 유행은 다시 그것의 새로운 반성적 계기를 만들었다. 여과 없이 외래사조를 받아들인 것의 신선함 뒤에는 우리 것의 향수에 대한 허무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60년대 휘몰아치던 단색화의 붐은 70년대 이 한국성이라는 주체적 내용에 고개를 들었고, 그 후 80년대 민중미술의 자각은 한국미술을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하기도 했다.

한때 실험성으로 끝을 맺었던 단색화가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국제 갤러리(대표 이현숙)가 단색화에 주목하면서 세계미술 시장이 한국 단색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단색화의 특징은 단순함, 반복적 행위, 극히 절제된 표현, 단조로운 색을 사용함으로써 내용보다는 형식 중심의 표현을 시도한다. 화가의 즉흥성과 감정을 잃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절제된 표현에 의한 감각적 행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가의 심리적 리듬을 읽어낼 수 있다.

국제갤러리는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술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단색화의 위상을 찾는데 힘을 쏟았다. 그 노력은 침체된 미술시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국제갤러리의 경영에도 중요한 선택이었다. 최근 2~3년 전만해도 세계미술시장에서는 이우환 정도만 단색화가로 기억하고 있을 뿐, 한국 단색화에 대한 존재는 그야말로 미미했다. 국제갤러리는 10여년 세계 주요 아트페어에 참여해 한국의 젊은 화가를 소개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아직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장은 없었다. 그러던 차에 국제갤러리는 1960~70년대 한국미술의 대표적인 단색화 화가들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런 자신감은 일본 미니멀아트가 미국에 소개되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단색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제갤러리 이현숙 회장의 장녀인 김태희(뉴욕 티나킴갤러리 대표)의 안목에 의한 것이었다. "단색화야말로 미술시장의 장기불황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이자 승부수다"라고 이현숙 회장은 확신했다.



▲ 윤형근 작

그 결과는 2013년 5월 국제갤러리는 영국의 세계적인 아트페어인 프리즈에서 나타났다. 세계인들이 한국 단색화전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번인 것처럼 전시 중인 단색화가 모두 판매돼 대 성공을 거두었다. 단색화를 구매한 기관들은 미국 구겐하임미술관, 디아트 센터,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 프랑스 퐁피두 센터 등 유명한 미술관들이었다. 이 대표는 단색화 작품이 팔리는 걸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

"좋은 일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아트페어 10여 곳에서 성공한 뒤 전시요청이 무척 늘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작품 요청은 해봤어도 거꾸로 외국에서 작품 달라는 소리는 화랑 경영 30여년 만에 처음입니다." 분명 한국의 단색화가 세계미술시장에서 불붙고 있다는 증거다.

### 세계에서 존경받는 아트 딜러

이런 열기를 반영하듯 국제갤러리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와 연계하여 대규모 특별전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 전시가 성공하면 해외미술관에 순회 전까지 생각하고 있다. 2014년 단색화전에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가 다녀갔는데 이번 총감독인 오쿠이 엔위저까지 가세하여 특별전을 도울 예정이다. 국제갤러리의 투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간 연 10회 이상 아트페어 참가비용으로 연간 30억 원을 넘게 썼고,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도 100만 유로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없는 성과는 없다. 국제갤러리 2013년 작품판매 매출은 554억 원이었다.



▲ 정철선 작.



세계적인 권위의 인터넷 미술매체 아트넷(Artnet)은 2014년 24일 치밀한 조사를 거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아트딜러 명단을 29명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이현숙 대표와 유명한 미국의 화상(畫商) 래리 가고시안 등 쟁쟁한 세계의 아트딜러들이 포함되었다. 이현숙 대표는 2011년에도 세계미술계 파워 100인 선정, 2013년 아트앤옥션 파워딜러 100인에 선정된바 있다. 2014년 아트넷 선정 가장 존경받는 아트딜러 및 파워여성 100인에 선정되었다.

### 서귀포에 국제갤러리 분관을 계획

국제갤러리 대표 이현숙의 부군(김병수 회장)은 제주인이다. 부군 김병수 회장은 즐거운 꿈에 부풀어 있다. 김병수 회장은 서귀포 삼매봉 지역에 있는 옛 강창학 농장(15,000평정도)을 3년 전에 구입하여 거주하면서, 그 옆으로 100평 정도의 국제갤러리 4관 전시장 2동을 계획하고 있다. 서귀포에 국제갤러리가 들어서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성의 아트딜러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주목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서귀포는 문화예술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각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인 빌바오 구게하임처럼 하나의 문화공간은 한 지역을 중흥시키기도 한다. 국제갤러리가 서귀포에 들어설 경우 서귀포시의 위상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제주에는 국내 유명 갤러리인 아라리오가 진출해 있다. 국제갤러리가 문을 열게 되면 세계 유명 미술인들의 다양한 전시가 열리게 되면서 문화적인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갤러리는 다가오는 광주 비엔날레에 맞추어서 서귀포시에서도 국내 최고의 단색화 작가 전시회를 열 계획도 있다. 국제갤러리의 서귀포 진출은 전 세계에 제주도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주출신 국제갤러리 김병수 회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 "서귀포는 환경적으로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술이 더 해지면 더없이 좋은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문화 예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술 공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제주도의 저력이자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회원)**

▶ 김유정의 다른기사 보기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URL: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02>